



전국체전 진주서 오늘 개막

제91회 전국체육대회를 하루 앞둔 5일 경남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최종 리허설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체전에는 광주·전남 등 18개 시·도 2만5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12일까지 7일간 41개 정식 종목과 3개 시범 종목에서 고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진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 이라크 완파

아시아축구 U-19 선수권

북한 19세 이하(U-19) 남자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꺾고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북한 대표팀은 5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쪼보의 린즈 스타디움에서 치른 대회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이라크에 3-0 완승을 거뒀다.

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과 첫 경기에서 0-1로 놓친 북한은 1승1패가 꽤 각주 1, 2위가 나서는 8강 진출 가능성을 살폈다.

북한은 7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바레인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북한으로서는 승리를 쟁겼지만, 출발도 덱지 않은 한 판이었다.

전반 15분 정지관의 패스를 받은 장국철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공을 잡아 원발슛으로 골문을 가르며 기선을 제압한 북한은 전반 45분 장성혁의 페널티킥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북한은 후반 들어서도 이라크를 물어붙였지만,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게다가 후반 37분 수비수 리얼진에 이어 43분 공격수 정지관이 이달아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9명으로 남은 시간을 버티면서도 후반 추가시간 박성철이 한 골을 더 보태 완승은 했지만, 주축 선수 두 명이 남은 바레인과 경기에는 뛸 수 없게 돼 아쉬움이 컸다. /연합뉴스

전남 사이클 나아름 2관왕 레이스

전국체전 3km 단체추발 한국新 이어 24km 포인트서도 금

전남 사이클대표 나아름(나주시청)이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전국체전 2관왕에 올랐다.

나아름은 5일 창원경륜장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사이클 여자 일반부 3km 단체추발에서 이은지·나희경·이연정(이상 나주시청)과 함께 3분30초316의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주시청팀은 종전 기록(3분33초045)보다 3초 이상을 앞당기며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4일 예선에서도 3분30초869를 돌파하며 금메달을 예고했던 나주시청팀은 6일 단체스프린터에서 다시 한 번 금빛 호흡을 맞춘다.

3km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학작한 나아

름은 24km 포인트레이스에서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지도 5일 500m 독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3위에 오르는 등 전남은 사이클에서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차지하며 채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남아름은 6일 3km개인추발, 이은지는 개인스프린트에서 메달 더하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반상의 세계’ 이세돌 천하

이세돌이 10월에도 랭킹1위를 지켜 통산 최다1위 기록을 39회로 늘렸다.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10월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은 지난달 보다 67점 오른 9천797를 얻어 4개월째 수위를 지켰다.

이세돌은 9월 한달 동안 이창호 9단을 이기고 물가정보배 타이틀을 차지하고 중국랭킹 1위 중계 9단과 무리카와 다이스케 5단을 연파하며 삼성화재배 16강에 진출하는 등 10승무패의 성적을 올리며 랭킹 포인트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이세돌은 올해 4월에 12승 무패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무패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한 해 무패의 두 자릿수 승수를 두 차례 올렸다.

또 올해 56승7패로 승률 88.9%를 기록하며 사상 최유의 연간 승률 90%에 바짝 다가서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연간 승률 90%는 1961년 김인 4단(당시)이 90.9%(20승2패) 한차례 달성했으나 규정국수 미달로 공인받지 못했다. 공인연간최고승률은 1988년 당시 3단이었던 이창호가 75승10패를 올리며 기록한 88.2%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적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적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적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적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적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적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계단 떨어지며 6위로 내려 앉았고 강동윤 9단과 박영훈 9단도 각각 1계단, 3계단이 하락하며 7위와 8위로 내려섰다. /연합뉴스

8개월 연속 랭킹 1위

최철한 2위·이창호 3위

최철한은 지난달 9승1패를 올리며 38점을 끌어올린 9천650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에 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세돌과 147점차까지 좁히며 연말 활약 여부에 따라 내년 초에는 1위 재등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4위에는 윤성진 9단이 올랐다. 상승세의 허영호 7단도 월간 9승1패의 호성으로 두 계단을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잡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쇠연소 국가대표인 박정환 8단은 두